

# 보탬e를 보탬으로 공무원·민간 모두에게 일손을 보태다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이용 매뉴얼 사이트 “보탬e를 보탬” 개설 -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 각종 보조사업의 종류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민간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음
- 보조사업 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용어(예시 : 교부결정, 예산편성목)와 복잡한 행정적 진행 과정에 보조금사업 관계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원성이 높음
- 특히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는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다소 생소
  - 2017년부터 시작한 국가보조금 통합포털인 "e나라도움" 사용에도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든 "보탬e" 또한 생소한 개념으로 친숙히 다가오지 않음
  - 개발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업무 매뉴얼 배포, 현장교육 중이나 생계와 개인 업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우며 매년 보조사업자나 행정 담당자가 변경돼 원활한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
  - 공무원용 보탬e와 민간보조사업자의 보탬e가 달라 공무원은 민간보조사업자용 보탬e 또한 숙지하지 않으면 민간에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숙지 후에도 부서 이동 등 담당 업무 변경 시 인수인계 또한 어려움
- 군산시 청렴도 저하 요인 중 하나인 '보조금' 항목 지적
  - '25. 7. 15.(화) 보조사업자 간담회 시 주요 의견으로 보탬e 시스템의 복잡성, 행정부담 과중, 매뉴얼 방대 등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개선 요구
-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매년 70개 이상의 단체가 100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보탬e 사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을 배치하였으나, 점점 늘어나는 사업으로 업무에 과중한 실정
  - 보편적인 보조사업 절차와 보탬e 사용 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전용 매뉴얼 사이트 개설할 필요성 대두

- 공무원 보탬e와 민간보조사업자 보탬e의 유기적 연결 매뉴얼 사이트인 **“보탬e를 보탬” 사이트 개설(2025. 7.)**

- 사이트 주소 : <https://howtousebojo.notion.site/e-231ff234815e80678b56cb805dd2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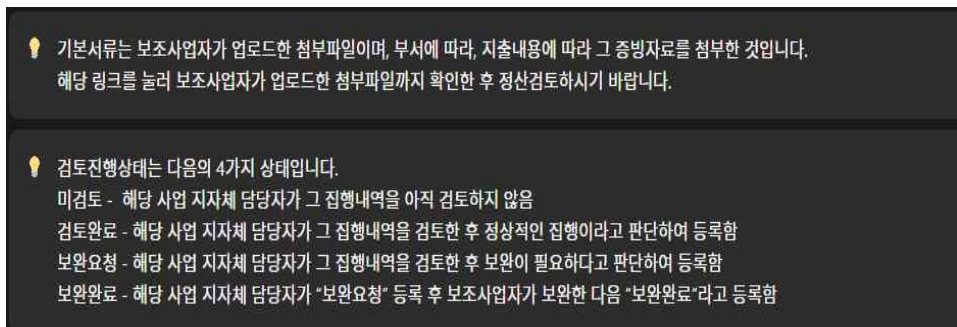


**추진 내용**

- 어디까지 진행하였는지 등 시스템 이용 시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가능
- 그간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트 제작자의 노하우 및 팁 공유
- 주요 질의답변 모음집을 통한 실무 효율성 제고
-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민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어디서나 “보탬e를 보탬” 사이트 접근 가능
- 사이트 이용에도 어려움을 느낄 이용자를 위해 생성형 AI인 NotebookLM에 “보탬e를 보탬” 사이트를 학습
- 대화로 시에게 질의함으로써 24시간 어디서나 1차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연계

**주요 성과**

- 업무흐름도 및 각종 과정의 메뉴 접근 과정 설명
  -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모두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전체적인 업무흐름도를 게시해 이해를 높임
- 실무자 및 사이트 제작자의 노하우·팁 공유(전구모양)



- '25. 11. 기준 사이트 첫 방문 2,200번으로 공무원과 민간 모두 활용 중임
-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변경되거나 부서 이동 등으로 인계인수 시에도 보탬e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 보탬e 공식 콜센터가 전국 문의가 많아 연결이 사실상 불가하였는데 보탬e를 보탬 사이트로 인해 민간보조사업자 불편함 개선

업무 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무원의 민간보조사업자의 보탬e 화면 접근 곤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민간보조사업자의 아이디/패스워드가 없으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탬e 접근은 협조 없이 불가</li> </ul> </li> <li>○ 서면매뉴얼이 있어 <b>사이트 개설 의문 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매뉴얼의 지속적 배포와 공공기관 출장교육으로 사이트 개설 불필요 의견 있었음</li> </ul> </li> <li>○ <b>사이트 이용률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저조할 것 예상</b></li> </ul>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b>각각의 보탬e 시스템 확인·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용 보탬e 와 민간보조사업자의 협조로 <b>보조사업자용 보탬e를 같이 경험하고 공유</b>해 공무원은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민간보조사업자는 행정적 처리 및 민원 불편 등에 대해 이해하였음</li> </ul> </li> <li>○ 서면매뉴얼의 한계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용·민간용 “예치형/비예치형” 2개의 매뉴얼이 각 200페이지 이상으로 <b>특정 업무 색인 곤란, 매뉴얼 속지 난항</b></li> <li>- 서면매뉴얼 특성상 시스템 기능 변경에 대한 <b>현행화 자료 미반영, 신규 기능에 대해 별도 매뉴얼이 추가돼 복잡함</b> (예시 : `25. 11. 추가된 민간보조사업자 예약이체 기능 추가 등)</li> <li>- 서면 매뉴얼로는 할 수 없는 <b>하이퍼링크로 공무원 보탬e ↔ 민간보조사업자 보탬e의 유기적 연결</b> 도모</li> </ul> </li> <li>○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b>사이트 홍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도자료, 청렴간담회, 보조사업자 간담회</b> 등에 “보탬e를 보탬” 홍보</li> <li>- 2025. 9월 <b>군산시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게시</b>해 적극 홍보</li> </ul> </li> <li>○ 매년 초 보조사업자에게 안내 공문을 통한 매뉴얼 사이트 이용 독려</li> </ul>
	기타 에피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탬e 뿐만 아니라 e나라도움 등도 매뉴얼 사이트 개설 요청 확인</li> <li>- 추후 e나라도움 사용 시 이 사이트에 e나라도움 매뉴얼 제작·게시 예정</li> </ul>

## 빈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1석 5조 전략

- 지역자활사업의 효율성 증대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사업 추진시 건물 임대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임대료, 임대료 인상, 계약 종료에 따른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 증가</li> </ul> </li> <li>○ 운영비, 임대료 비용이 높아 사업 확대시 시비 부담 감소 대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국비90%), 운영비(국비70%)로 시비 부담 비중이 높음</li> </ul> </li> <li>※ 지역자활사업 : 근로능력이 미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운영. 우리시는 2개 센터 21개 사업장에서 200여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아동들의 자립 지원에 큰 효과가 있어 학교밖 아동 등 청년 일자리로 연계 추진 중임</li> </ul>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소유 건물 우선 활용을 위한 공모 응모 및 운영비 절감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공모 응모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모 명 : 자활인프라구축사업(24년5월 선정 - 25년 12월 준공 예정)</li> <li>* 공모내용 : 구)미성동사무소 활용 자활 인프라 구축 사업</li> <li>* 총사업비 : 10억원(국비7억원, 시비3억원)</li> <li>* 활용용도 : 작업장, 사무실, 교육장, 전시장 등</li> </ul> </li> <li>- 운영비 절감 - 태양광 패널 설치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15KW 설치 - 신재생에너지과 협의 완료</li> <li>* 계통 연계 - 한국전력, 세원이엔에스 방문 협의</li> </ul> </li> </ul> </li> <li>○ 타 기관 건물 임대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협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료 1개소 : 전)흥남피출소 → 카페보네 (25년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명 : 나라ON 자활 상생 일터(카페보네346) - 전국20호</li> <li>* 사업비 : 리모델링비 7천만원 캠프코(한국자산공사) 지원</li> </ul> </li> <li>- 진행 3개소 : 전)국정원 군산출장소, 선유도·무녀도 파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정원 군산출장소는 임대 및 임대료 50% 감면 협의 완료 후 정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 검토 중</li> <li>*선유도·무녀도 파출소는 사용 용도 내부 논의 중</li> </ul> </li> </ul> </li> </ul>
추진 내용	

- ① 임대료와 운영비 감소로 예산 절감(년78백만원) 효과 극대화
- ② 공공건물 임대 및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활 사업 기반 구축
- ③ 공공건물 활용으로 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④ 기관·부서간 협업으로 복지+도시재생+경제+문화의 융합형 모델 구축

구분	추진이전(As-Ls)	추진이후(To-Be)
공모선정		사업당위성과 <b>7억원 국비 확보</b>
예산절감 (임대료)	센터 2개소 106백만원 사업장 1개소 12백만원	2개소 38백만원 <b>년68백만원 절감</b> 1개소 2.5백만원 <b>년9.5백만원 절감</b>
예산절감 (태양광)		<b>년간 5,000천원 절감</b>
자활사업	불안정한 사업 추진 (이전:월세88→120만원)	안정성 확보, 사업 지속성 강화
빈건물	도심 공동화의 상징	도심 공동화 해소 사회적 가치(공공성) 실현 장소
시민 참여자	공공 사업 인식 부족	공공사업과의 연계 인식 용이 지역 공동체 형성의 핵심

**추진과  
정에서의  
어려움**

- 국비사업(인건비90%, 운영비70%)으로 시비 부담이 적어 개선 인식 적음
- 시 공공건물 활용시 자체 사업비 확보와 관련 지역별, 사업별 요구가 다양하여 시의회 설득 곤란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미약
- 중앙정부 소유 건물의 경우 임대 사용 요청 기관이 많아 캠프에서 일방적인 사업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극복  
노력**

- **협의 및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건물 활용이 필수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 추진력 확보**
- 시 소유 건물의 경우 중앙 공모를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문제 해결
- 캠프가 그간 장애인, 노인 시설 중심으로의 임대 기조를 복합 형태인 자활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통해 협의 설득함으로써 전국 20번째 개소는 물론 국정원 군산사무소 등 3개소로 사업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

**극복  
노력**

**기타  
에피  
소드**

- 캠프와의 추가 사업 협의시 군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명 - 시장,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면담으로 사업 의지를 전달 캠프 지도부 설득 (호박 한바퀴 구르면 좁쌀 1000보다 더 간다 실감)

# 여권검사 NO, 어린이집 프리패스 탑승 중!

-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되는 외국인 가정 유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외국인 기준 9,123명/24.9. → 11,142명/25.9. (22% 증가)</li> </ul> </li> <li>○ [외국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육 수요는 확대되나 경제적 부담 및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의 지속적인 발생</li> </ul> </li> <li>    <b>[어 린 이 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가정의 미납(체납) 보육료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 및 기존 아동들의 보육의 질 저하</li> </ul> </li> <li>    <b>[담 당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공공성 강화, 아동권리 보장, 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체계 마련의 시급성 체감</li> </ul> </li> </ul>																		
사 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절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보건복지부 협의 (1차) 보육료 100% 지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보건복지부 협의 (2차) 보육료 70% 지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보건복지부 협의 (3차) 보육료 50% 지원</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협의완료] 사회보장제도 신설</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td> </tr> <tr> <td style="padding: 5px;">24.7.19.</td> <td></td> <td style="padding: 5px;">25.2.14.</td> <td></td> <td style="padding: 5px;">25.3.27.</td> <td></td> <td style="padding: 5px;">25.7.22.</td> <td></td> <td style="padding: 5px;">25.10.~</td> </tr> </table>	보건복지부 협의 (1차) 보육료 100%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 (2차) 보육료 70%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 (3차) 보육료 50% 지원	⇒	[협의완료] 사회보장제도 신설	⇒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	24.7.19.		25.2.14.		25.3.27.		25.7.22.		25.10.~
보건복지부 협의 (1차) 보육료 100%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 (2차) 보육료 70% 지원	⇒	보건복지부 협의 (3차) 보육료 50% 지원	⇒	[협의완료] 사회보장제도 신설	⇒	군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											
24.7.19.		25.2.14.		25.3.27.		25.7.22.		25.10.~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간 : 2025년 10월 ~ 12월(3개월) /2026년 연중 시행 예정</li> <li>○ 사업 대상 :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 중 군산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0-5세)</li> <li>○ 사업 내용 :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50% 지원</li> <li>○ 진행 과정</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보육료 지원 신청</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지원대상 검토 및 결제권자 등록</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국민행복카드 결제</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부정수급 모니터링</td>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보육료 입금</td> </tr> <tr> <td style="padding: 5px;">어린이집→시</td> <td></td> <td style="padding: 5px;">시</td> <td></td> <td style="padding: 5px;">보호자</td> <td></td> <td style="padding: 5px;">시</td> <td></td> <td style="padding: 5px;">카드사→어린이집</td> </tr> </table>	보육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검토 및 결제권자 등록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부정수급 모니터링	⇒	보육료 입금	어린이집→시		시		보호자		시		카드사→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검토 및 결제권자 등록	⇒	국민행복카드 결제	⇒	부정수급 모니터링	⇒	보육료 입금											
어린이집→시		시		보호자		시		카드사→어린이집											

주요 성과

- 지원 대상 가능 아동 62명 중 37명 지원(목표 60% 달성)
- 지원 가능 어린이집 26개소 중 20개소 지원(목표 77% 달성)

구분	총계	영아(0~2세)				유아(3~5세)				비고
		소계	0세	1세	2세	소계	3세	4세	5세	
재원아동	62	42	13	16	13	20	8	9	3	26개소

- A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미납액 월 약 133만원 감소**
-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체계 구축
-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 타 지자체에서 사업 벤치마킹 문의 발생(정책적 파급 효과)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상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지원 기준과 절차 및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해 전북도 내 정읍시·남원시·장수군(기존 시행 지자체)에 문의하였으나,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비교·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사후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극복 노력

- 전북도 내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시·군·구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실무 사전 학습을 실시하여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대상 사업의 특성상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인지하고, **신청 단계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신청서식에 동의란을 추가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
-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과정에서 체류지·체류자격 변동사항 확인이 필요하나, **향후 대상자 증가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업무 위탁 가능 여부를 검토·문의**하였음. 비록 위탁은 불발되었으나, 현재는 수기 검증 체계로 관리하며 보다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지속 중임.

<p style="text-align: center;"><b>극복 노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원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b>‘원페이지 가이드’ 및 통합 신청서 양식을 자체 개발</b>하여 군산시 관내 어린이집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공유함으로써 제도 확산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li> <li>○ 초기 과도한 서류 요구로 인해 신청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b>실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b>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li> <li>○ 재원 중이나 보육료를 미신청한 아동에 대해 <b>원장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미신청 사유를 확인</b>하였으며, 사업 이해가 부족한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타 에피 소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사정으로 보육료 감면을 받던 일부 외국인 가정은 원에 부담을 줄까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등원일수를 줄이는 등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음. 그러나 보육료 지원 시행 이후 한 달 내내 정상 등원하게 된 아동의 한국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심지어 지역 사투리까지 구사하게 되었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음. 이를 통해 본 사업이 외국인 부모와 어린이집뿐 아니라 언어 발달 시기의 아동에게도 실질적·긍정적 효과를 주는 정책임을 확인함.</li> <li>○ 공장단지 인근 어린이집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가정 아동의 보육료 감면 및 체납 증가로 인해 학부모와 원장 간의 소통이 어려웠던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보육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불편한 납부 관련 대화를 할 필요가 사라지고, 외국인 가정의 입소문의 시에도 보육료 부담 없이 안내할 수 있게 되어 상담 분위기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들음.</li> </ul>

## 외국인계절근로자 우리 시 농촌에서 꿈을 키우다

-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임시 기숙사 운영 -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 내국인의 농업인력 기피현상 등 만성적인 농촌일손 부족 심화</li> <li>○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기준 인건비를 제시하여 농업 인건비 상승 억제 및 농번기 적기 인력 공급</li> <li>○ 농업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농작업 인력공급체계 구축</li> </ul>
사 례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b>&lt;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사업&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농가상주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고정(5~8개월) 근로계약으로 장기간 고용 및 인건비 부담 심화</li> <li>○ 하루단위 단기근로인력 공급의 필요성 증대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인력 수급이 절실하여 외국지자체(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빈현)와 업무협약(MOU) 체결로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과 더불어 2025년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공공형 계절근로자 임시 기숙사 운영&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외국지자체(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빈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도입에 따른 필수조건인 공동숙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희 공유재산(임피면 미소길탐방센터)을 관리전환 받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의견청취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필수조건인 공동숙소 확보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여건 마련을 위해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li> </ul>
추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lt;공공형 계절근로자 임시 기숙사 운영&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외국지자체(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빈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도입에 따른 필수조건인 공동숙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산시 유희 공유재산(임피면 미소길탐방센터)을 관리전환 받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의견청취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lt;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필수조건인 공동숙소 확보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여건 마련을 위해 2025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 추진 및 선정(농림축산식품부)</li> </ul>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 농가상주형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초청)는 장기간 고용 및 인건비 부담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루단위 단기근로인력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이 시급하였음.
- 2025년 2월에 베트남 까마우성 터이빈현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현지 선발면접을 통해 우수하고 성실한 계절근로자 19명을 도입함.
- 이에 따라, 2025년 4월 ~ 9월까지 209농가에 2,104명(연인원)을 중개하여 농번기 적기인력 공급에 따라 적기영농 추진 및 사설인력 인건비 15~16만원 대비 11만원의 인건비를 제시함으로써 농가당 인건비 4만원 이상을 절감하여 농가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음.

**<공공형 계절근로자 임시 기숙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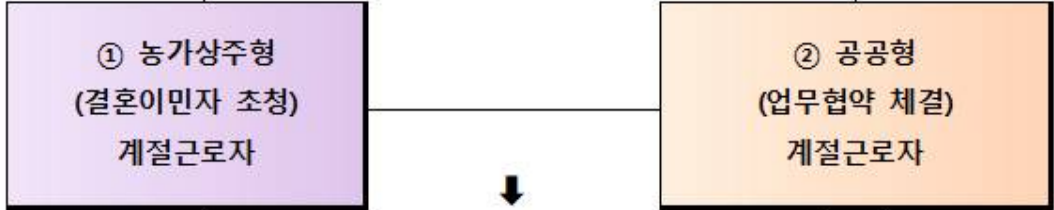
- 그동안 방치되었던 유휴 공유재산인 (구)미소길탐방센터를 용도변경(관리전환) 받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의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25년 2월 ~ 4월까지 개보수 및 필요 물품 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타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대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주요  
성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 낯비현상 문제 대두로 기숙사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근상가 및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당초 (구)초산부대에서 (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부지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부지 인근 상가, 지역주민 등 사업의 취지 및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으며, 그동안 방치되었던 유휴 공유재산인 (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철거하여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이 최우선 과제으로써,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공동숙소가 필수조건이며 안정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외국인계절근로자도 심적으로 안정되어 근로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기숙사를 조기 준공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용 여건 마련 및 도입국 다변화를 통한 외국인 도입 확대를 통해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기숙사가 입지하게 되면 만성적인 농촌일손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농촌 인력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전담 통역 지원**

- 사업기간 : '25. 4.~12.
- 사 업 비 : 28.8백만원
- 사업내용 : 통역,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25년 상반기 : 36농가 99명
- '25년 하반기 : 25농가 83명
- ⇒ 총 49농가 151명

**공공형 임시 기숙사 운영**

- 위 치 : 임피 미소길탐방센터
- 기 간 : '25. 4. ~ 9.
- 사업비 : 45백만원
- 입주자 : 19명(베트남 터이빈현)

**공공형  
농촌인력증개센터**

- 운영기간 : '25. 4. ~ 9.
- 사 업 비 : 90백만원
- 운영주체 : 대야농협
- 증개실적
- 962농가 2,104명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5. 1. ~ 12.
- 사 업 비 : 35백만원
- 사업내용 : 산재보험 등 지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위 치 : 대야 (구)정신건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5 ~ '27년(3개년)
- 총사업비 : 2,811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형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주요  
성과

	<p><b>추진 과정에서 의 어려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역단위농협으로써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및 주당 35시간 임금보장으로 지역농협의 적자 리스크, 업무협약에 대한 불확실성 및 언어소통의 애로점이 많아 무엇보다도 지역농협의 추진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등 노동집약적인 수요가 많은 동부권 내 대야농협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로 하루단위 단기근로인력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2025년 최초로 우리시에 도입할 수 있었음.</li> <li>○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언어소통 어려움에 따라 2번의 채용공고 추진과 관련기관 방문 등을 통해 베트남에서 귀화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원활한 통역을 지원할 수 있었음.</li> </ul>
<p><b>업 무 담 당 자</b></p>	<p><b>극복 노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질적이며 만성적인 농촌일손 부족문제 및 내국인 농업인력 기피현상 심화로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농촌인력으로 도입하는게 최선의 대안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외국지자체 개척 및 외국지자체 업무협약 체결로 하루단위 단기근로인력인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최초로 도입하여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소 및 농업 인건비 상승 억제에 따른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li> <li>○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으로 공동숙소 확보가 필요하나,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기숙사에 대한 님비현상 심화로 기숙사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적극 행정을 통해 마을간담회 실시, 인근 상가 및 지역주민들과의 만남 등 현장행정을 통해 기숙사 입지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음.</li> <li>○ 농업 근로자 기숙사 부지에 대해 당초 부지(구 초산부대)에 대한 입지 여건 재분석 등 예측 불가한 부지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변경 추진 부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근 마을 간담회, 인근 상가, 지역주민에 대한 동의를 받아 어렵게 변경 추진할 수 있었음.</li> </ul>
	<p><b>기타 에피 소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구감소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로써, 활기를 잃은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구상중에 있음.(지역상생, 윈윈 시책)</li> </ul>

# 강소특구 우려를 신뢰로 바꾼 군산시 기업지원 적극행정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

	<p><b>추진 배경</b></p>	<p>○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0년 지정 이후 주요 기반을 다져왔으나, 2024년부터는 '기업 성장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도약기'에 진입하였고 특히 우리 시는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 이후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어, 기술기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고용 유지를 위해선 강소특구를 매개로 한 체계적인 기업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팀은 단순한 개별사업 집행을 넘어 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강소특구 연차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p>
<p><b>사례 내용</b></p>	<p><b>추진 내용</b></p> <p><b>사업 부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기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구 내 기업을 대상으로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을 통해 실태조사·면담 실시하여 R&amp;D → 시제품 → 인증·규제 → 판로·투자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li> </ul> </li> <li><b>2. 선제적 기업애로 발굴 및 현장밀착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규제, 인허가, 공정전환, 인력난, 자금난 등 현장 애로사항 선제적으로 수집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처리상황을 상시 관리 및 기업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회신</li> </ul> </li> <li><b>3. 강소특구 연차평가 대비 성과관리 체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부 연차평가 지표(사업화 성과, 입주기업 만족도, 지자체 기여도 등)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지표별 성과 점검하는 구조 마련</li> </ul> </li> <li><b>4. 기업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연계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R&amp;D, 설비투자, 판로·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패키지 적용하여 성과 극대화</li> </ul> </li> </ol>

팀  
노  
력

**1. 역할 분담과 공동 기획**

- 담당계장 : 기업지원 종합전략 수립과 대외협약·예산·제도 개선 총괄하고, 중앙부처·도·특구진흥재단·유관기관과의 협의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담당주무관 : 기업 실태조사 설계, 현장방문·상담 지원, 자료 취합 및 분석, 각종 회의자료·보고서 작성 담당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과 사업 설계에 반영되도록 연결고리 역할 수행
- 담당계장은 난이도 높은 규제·제도·예산 관련 이슈 직접 챙기고 주무관은 현장 방문·추가 자료 수집·기업과의 수시 소통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략-현장'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유기적 연계

**2. 부서·기관 간 협업 촉진자 역할**

- 담당계장 : 전북자치도, 특구진흥재단, 대학·연구기관, 투자·금융 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간담회·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강소특구육성 사업단에 담당계장이 큰 틀 제시
- 담당주무관 : 자료·사례·데이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개인이 아닌 '팀 단위 기업지원 역할'이 안착하도록 지원

주  
요  
성  
과

**1. 과기부 연차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최우수) 달성**

- 2024-2025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군산 강소특구가 전국 14개 강소특구 중 2년 연속 전국 1위(최우수) 달성

**2. 기업지원 실적**

성과지표 <small>(과기부 제시기준)</small>		2024		2025	
		목표	실적	목표	실적
핵심지표	연구소기업(개)	6	6	6	9
	기술이전(건)	17	65	15	59
	신규창업(건)	9	11	8	11
	투자연계(억원)	10	80	9	259
관리지표	일자리창출(명)	35	299	12	190
	매출액(억원)	26	125	23	164
	특화육성(건)	1	2	1	2
	특구간연계(건)	1	2	1	2

**3. 기업 체감도 제고 및 이미지 개선**

- 고용·산업위기 지정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강소특구 사업을 통해 R&D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 특히 강소특구 지정 당시 과기부의 우려와 달리 군산이 강소특구 2년 연속 최우수 달성으로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뛰는 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하는 데 기여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p><b>1. 인력·시간의 제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특구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사실상 계장·주무관 2인에 집중되어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업무 상시 발생하여 대응 어려움</li> </ul> <p><b>2. 복잡한 제도·평가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 특성상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연구재단이 제시하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구성요소도 생소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초기에는 사업전반과 제도를 이해 하는데 어려움 있었음</li> </ul> <p><b>3. 다부처·다기관 협업의 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부를 비롯하여 연구개발진흥재단, 전북자치도, 지역 내 혁신 기관 및 대학교의 제도와 정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를 각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li> </ul>
	극복 노력	<p><b>1. 현장 중심·선제적 접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공장 및 연구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과의 밀착을 통해 신뢰를 쌓고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li> <li>- 중소기업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강소특구의 사업과 프로그램을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사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설명</li> </ul> <p><b>2. 기관간 협업 이끌기 위한 조정자 역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와 정책이 다른 기관간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 공문 대응을 넘어 기업 애로사항 및 실제 데이터 담긴 현장감 있는 자료 공유</li> </ul> <p><b>3. 계장·주무관의 상호보완적 협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제출 및 현장 대응 등 업무 과중하게 발생 시 담당계장과 담당주무관이 직급을 떠나 업무 분담하여 팀 단위로 업무 수행</li> </ul>

**기타  
에피  
소드**

○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소특구 연차평가 현장 발표에서 우리 시 발표가 끝난 뒤, 평가위원들로부터 의미 있는 평가가 있었음. 어떤 위원은 “군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처음 지정될 당시만 해도 조선·자동차 산업 위기와 인구 감소 등으로 과연 특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면서, “오늘 발표와 성과자료를 보니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언급하는 등 평가위원들의 호평이 있었고 이러한 평가위원들의 반응은, 강소특구 지정 초기의 우려를 넘어 우리 시가 짧은 기간 안에 신뢰받는 특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서해 지킴이 116년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거듭나다

- 전국유일, 전북최초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 -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도등대는 1909년 건립되어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역사적 의미가 깊은 등대로, 2019년 무인등대 전환 후 관리시설 미사용에 따라 국민에 널리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 필요</li> <li>2017년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고군산군도 연속성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가까운 섬까지 관광영역 확대 필요</li> </ul>											
	추진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h>2024년</th> </tr> </thead> <tbody> <tr> <td>관광객(명)</td> <td>2,880,391</td> <td>2,333,496</td> <td>2,436,680</td> <td>3,005,686</td> <td>2,378,88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3. 4월 선정된 말도·명도·방축도 K-관광섬 육성사업('24.~'26.)과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를 잇는 해상인도교 개통('25년 예정)과 연계하여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공간 마련</li> <li>⇒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임에도 5개의 섬을 연결하는 &lt;해상인도교 조성&gt; 및 &lt;K-관광섬 육성사업&gt;과 연계하여,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을 K-해양문화의 거점이자 서해안 등대관광의 대표명소로 조성하고자 적극적으로 공모 추진</li> </ul>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광객(명)	2,880,391	2,333,496	2,436,680	3,005,686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관광객(명)	2,880,391	2,333,496	2,436,680	3,005,686	2,378,882								
	추진 내용	사업 부문	<p><b>『2025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b></p> <p style="text-align: center;">&lt; 2025년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정개요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 모험과 이야기가 있는 보물섬 말도등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물섬 : 황금어장, 난파선(수중유물), 지질자원, K관광섬, 인도교</li> </ul> </li> <li>대상지 말도등대 일원(약 3,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도등대 : 1909년 / 2019년 무인화 / 팔각철근콘크리트조 / 143㎡</li> </ul> </li> <li>사업기간 : 2025. ~ 2027. / 3년</li> <li>총사업비 : 4,000백만원 (국 1,200, 도 840, 시 1,960)</li> <li>사업내용 : 경관훼손 최소화, 감성적 체류공간 조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0%;">어드벤처</td> <td>보물섬 전망대, 보물섬 언덕, 모험길 조성</td> </tr> <tr> <td>스토리움</td> <td>말도등대 내부(전시공간, 실감콘텐츠)</td> </tr> </table>	어드벤처	보물섬 전망대, 보물섬 언덕, 모험길 조성	스토리움	말도등대 내부(전시공간, 실감콘텐츠)						
어드벤처	보물섬 전망대, 보물섬 언덕, 모험길 조성												
스토리움	말도등대 내부(전시공간, 실감콘텐츠)												

**【주요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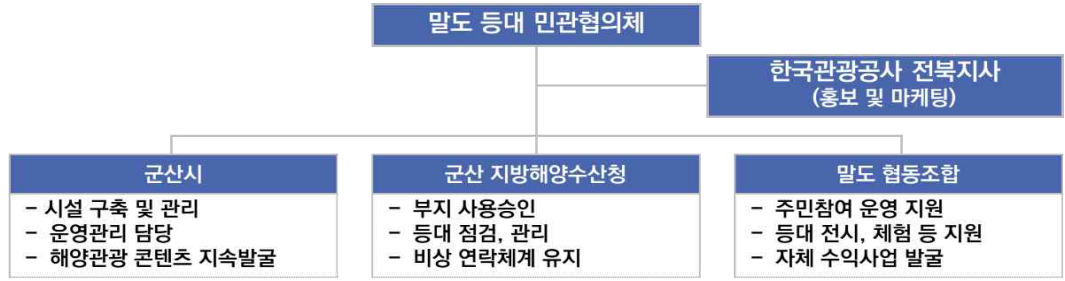
- 「등대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 : `24. 1.
- 용역 착수(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 `24. 11.
-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사업계획 수립 : `25. 4.~6.
- 공모 신청 및 현장·서면평가 실시 : `25. 6.~7.
- 말도등대 선정(해수부) : `25. 7.22
-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지정 및 계획 승인 완료 : `25. 10

- 「등대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말도등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해양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용역 착수**
- 사업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대상 사전설명 및 의견 수렴**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지방비 확보 등 공모선정을 위한 협업체계 마련**

팀 노력

구 분	주요 내용
<b>기획재정부</b> (농림해양 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비요청</li> <li>- 말도 등대해양문화공간 사업화 및 국비 예산 반영 건의</li> <li>- 2회방문 : 2024. 06. 26(부시장) / 2024. 07. 22(시장)</li> </ul>
<b>군 산 지 방</b> <b>해양수산청</b> (항행정보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대해양문화조성사업 관련 말도등대 활용 협의(2023. 10. 17)</li> <li>- 등대 유희시설 및 기반시설 활용방안 협의</li> <li>- 등대주간행사 개최 (해수청, 군산시, 2024. 07)</li> <li>• 말도등대부지 사용허가 사전협의 요청(2025. 06. 11)</li> <li>- 말도 등대 부지 사용허가 가능 회신(2025. 06. 19)</li> </ul>
<b>전북자치도</b> (해양항만과) (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도등대 공모사업 관련 현장 간담회 실시 (2025. 05. 29)</li> <li>- 말도등대 공모대상지 현장점검 및 지방비 부담 협의 등</li> <li>- 지방비의 30% 도비 지원 협의 완료</li> </ul>
<b>지 역 주 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도등대해양문화공간조성 공모 관련 설명회 개최(2025. 06. 18)</li> <li>-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개요 설명 및 의견수렴 등</li> <li>※ K-관광섬 관련 주민설명회, 역량강화 지속추진</li> </ul>

- 공모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마련하였으며 주민대상 간담회 및 의견 반영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모델 기반 마련



- 행정실무협의체(TF) 개최하여 공모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 등대해양문화 조성사업 공모대응 관련 행정실무협의체(TF) 개최 (2025. 5. 27/ 7. 2)



- 담당자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전략적 공모 대응

내용	A 계장	B 주무관
공모대응 전략수립	- 공모사업 대응 방향 설정	- 공모지침 분석 및 전략적 사업계획서 작성
대외 협력 및 협의	- 기획재정부, 해양수산청, 전북도 등 유관기관 협의 주도	- 기관별 협의자료 작성 및 실무협의 진행
주민의견 수렴	- 주민설명회 개최 주관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시 - 주민참여형 관광모델 방향 설정	-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 - 주민의견 정리 및 사업 계획 반영
행정협의체 운영	- 행정실무협의체(TF) 구성 및 회의 주재 - 부서 간 협의체계 조율	- TF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정리 - 실무부서 간 의견 조율 및 후속조치
평가 대응	- 공모 대응 전반 총괄 및 성과 점검	- 항목별 체크리스트 기반 서면평가 준비 및 작성 - 현장평가 대비 시각자료 제작 및 설명자료 작성

주요  
성과

**【계량적 성과】**

- 등대유산보존법 제정이후 첫 공모사업으로 전국 1곳 선정에 불과한 공모사업에 3차례 평가(서면, 현장, 종합)후 '25. 7. 22일 말도등대 최종 선정
- 전북자치도 해양항만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등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공모대응, 지방비 확보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 행정협력 실현
- 등대해양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40억 확보(국 12, 도 8.4 시 19.6)

**【비계량 성과】**

- 시에서 기추진중인 <말도-명도-방축도 해상인도교 및 트레킹코스 조성사업('17.~'25. / 총사업비 340억원) 개통 및 K-관광성 육성사업('23.~'27. / 총사업비 115억원) 연계하여,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고군산 관광활성화 시너지 창출
- 향후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주민 소득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효과 기대
  - 등대 방문객의 10%가 1인당 평균 5,000원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간 25백만원, 중장기적으로 약 50백만원의 수익 확보 가능

구분	2024년	단기 (초기 3년)	중기 (4~6년)	장기 (7년 이후)
방문객 수	37,539	50,000	70,000	100,000
예상 매출액	18.8	25.0	35.0	50.0

-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등 파급 효과

(직접고용)	(간접고용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대해양문화공간 시설관리 2명, 해설사 3명	취업효과 42명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112.12억 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효과	고용효과
계수	1.97	0.8333	10.5명/10억원	8.2명/10억원
파급효과	7,020백만원	3,020백만원	42명	33명

업무담당자	추진 과정에서 의 어려움	<p>① <b>【시비 확보를 위한 재정적 부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사업임을 감안하여 <b>국비 지원금을 사업비의 50% ~ 70% 예상</b>하였으나 공모 공고시 국비 지원금은 사업비의 30%로 시비70% 확보에 대한 시재정 부담과중, 시의회 설득 및 자체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 제기</li> </ul> <p>② <b>【경쟁 후보지인 울진군 후포등대와의 비교 열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후보지인 후포등대는 내륙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후포항 여객선 터미널을 통해 울릉도를 향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b>연간 관광객 유입 규모가 매우 커 상대적으로 경쟁이 불리한 상황</b>이었음</li> <li>- 울진군은 이미 후포등대와 연계한 등대광장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20억을 투입하여 <b>기본적인 기반시설 완비</b></li> <li>- 후포등대 인근에는 등기산 스카이워크, 벽화마을 등 관광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b>관광객 체류 유도 유리</b></li> <li>- 울릉도행 여객선이 운항되는 후포항은 연간 약 3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지역으로, 관광객 수요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li> </ul>
	극복 노력	<p>① <b>【도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설득과 협업 노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장간담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b></li> <li>- 전북자치도 해양항만과와 말도등대 <b>현장간담회</b>를 직접 주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b>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청함</b></li> <li>- 간담회 이후에도 해양항만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견 조율하였고 전북자치도 회계과를 직접 방문하여 <b>도비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비 분담의 당위성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b></li> </ul> <p>⇒ 전방위적이고 끈질긴 노력의 결과, 전북자치도는 총 지방비 2,800백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40백만원의 도비 지원을 최종 확정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계획서에 <b>지방비(도비) 확보 첨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음</b></p>

		<p>② 【 경쟁후보지와 경쟁 열세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한계를 극복한 콘텐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도등대는 도서지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내륙등대에 비해 접근성이 낮고 기반시설 부족한 상황이나, 서해안권의 트레킹 거점으로서 자연경관과 등대유산의 원형보존 상태 우수 강조</li> <li>- 도서 등대 특유의 고립성과 탐험적 매력을 활용한 '보물섬 어드벤처' 콘텐츠를 기획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강조</li> </ul> </li> <li>○ 공모선정의 승부처인 현장평가 대응을 위한 시각적·환경적 준비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평가를 공모선정의 핵심 승부처로 판단하고 현장평가 시 말도등대의 사업 대상지와 콘텐츠 구상을 평가단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시각화한 도면, 조감도, 콘텐츠 구성안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강조</li> <li>- 등대 내·외부에 말도등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연계사업과의 기대효과를 담은 전시 패널과 설명문을 설치하여 평가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연출</li> </ul> </li> </ul> <p>⇒ 이러한 전략적 대응 방안은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심사 평가단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 말도등대 최종 공모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함</p>
	기타 에피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낮기온 39도, 땀으로 빛난 영웅들... 그리고 고마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7월 현장평가를 앞두고,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본인 업무가 아님에도 말도등대 현장 정비에 나섰다</li> <li>- 당시 기온은 39도, 바람한점 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직원들은 등대 내부와 오랫동안 방치된 사무실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하고 꾸미며 평가단을 맞이할 준비에 최선을 다함.</li> <li>- 먼지 쌓인 창틀을 닦고, 오래된 바닥을 청소하고, 설명 패널을 직접 설치하는 등 땀과 열정으로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킨 순간들,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었음</li> <li>- 일부직원은 숙박을 자처하여 이른 아침부터 평가단의 안내 동선을 점검하고 직접 등대 앞에서 평가단을 맞이하였음</li> <li>- 이처럼 무더위도 피로도 잊은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은 평가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말도 등대의 가능성과 군산시의 추진 의지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공모 선정으로 이어짐</li> </ul> </li> </ul>

【 행정· 의회· 예술단 】

소통과 조정으로 이뤄낸 시립예술단 갈등 해소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 군산시립예술단은 2024년 5월 23일 군산시 의회 주관으로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 드림홀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고성과 야유, 편향성 논란 등으로 정상 진행되지 않아 시의회와 예술단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군산시는 개정 조례안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25년 2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부개정 조례안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갈등 해결은 미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장 외 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노조 단체협약』 제7조(규정 제정과 개·폐), 제6조(기득권 저하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등 의회 전부개정 조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만남을 통한 협상과 설득을 통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 군산시 의회에서 2025. 10. 29『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가결과 예술단 노조와는 2025. 11. 18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 이 사례는 시민참여와 법령 준수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로 앞으로 군산시는 법적 절차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갈등 해소와 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발의 :’24. 10. 17.</li> <li>○ 전부개정조례안 제268회 임시회 가결 및 이송 :’24.10.25 /’24.10.28.</li> <li>○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출 :’24. 11. 18.</li> <li>○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재의결 :’24. 11. 27.</li> <li>○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신청 건 제소 :’24. 12. 16.</li> </ul> <p>&lt;사건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2024주5198)</li> <li>- 전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결정 신청 (대법원 2024쿠1007)</li> </ul> <p>○ 대 상 자 ( 원 고 : 군산시장, 피 고 : 군산시의회 )</p> <p>○ <b>제소사유 :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의결 무효 판결을 구하고자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개정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 (근로기준법 제94조, 96조 위반소지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위반소지)</li> </ul> <p>○ 변호사 선임 : 2024. 12. 6.</p> <p>○ 집행정지 결정(2024쿠1007) : 2025. 2. 5</p> <p>※ <b>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으로 행정력 낭비</b></p>
	추진 내용





팀 노 력	<p><b>1. 예술단 단원 및 노조와의 지속적 소통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 전체 설명회 개최('25.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 지적사항 관련 예술단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 해소, 예술단의 지향점 공유 등</li> </ul> </li> <li>* 정기적(주1회) 및 수시만남 추진 : 개정조례 이해 돕기 위함 (우리과) A과장, B,C,D주무관 (예술단) 노조회장, 부회장, 소통위원, 단무장, 지휘자 등</li> </ul> <p><b>2. 사무국 신설에 대한 사무단원들과의 소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단원은 연주단원과 달리 공연을 뒷받침하는 일반업무임을 어필</li> <li>* 우리 직원과 같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정근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등 수당 협상에 성공</li> </ul> <p><b>3. 단협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 (8회)</b></p> <p>(사측) A과장, B,C,D주무관 (노측) 노조회장, 부회장, 조직국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협의 8회 개최 (6.9, 6.10, 6.13, 8.12, 8.19, 9.9, 10.15, 10.22)</li> </ul> <p><b>4. 의회 의원들과의 소통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위원장, 부위원장, A, B의원 등 행정복지위원들과의 소통 추진</li> <li>- 시립예술단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의견 반영 및 간담회 개최</li> </ul> <p><b>5. 위원회발의 조례가 대법원 제소 증으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처리기간 (최소 1~3년) 동안 업무 진행을 관망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 및 시의회 의원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안 강구</b></p> <p>※ 시립예술단 운영 안정화 실행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단원 및 노조와 임금협상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및 근거마련</li> </ul>
	주요 성과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업무 담당자</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추진 과정에서 어려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추진 이전에는 예술단원들 전부를 비상임으로 전환시키는 줄 알고 예술단원들 반대</li> <li>2. 사무단원 근무시간 연장(10시~16시 ⇒ 09시~18시)에 따른 사무단원들의 반감 및 그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li> <li>3. 의회에서 요구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무단원의 퇴직금 적용에 대한 예술단측 반감</li> <li>4. 24. 5. 23. 개최된 &lt;군산시립예술단 발전에 관한 시민공청회&gt; 시 예술단측 민주노총노조에서 고성 및 야유 등 격앙된 분위기 공청회를 치르고 시의회 의원들의 시립예술단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로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운 과제였음.</li> <li>5. 조례와 단체협약이 부합되도록 단협체결 이전에 &lt;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gt;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했기에 시의회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 및 행복위원회 의원들 의견수렴과정 필요</li> </ol>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극복 노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단원들과 집행부간의 상호 불신과 오해의 관계를 지속적인 만남과 신뢰구축을 통해 극복 (예술단원들에 대한 관심 표명, 오찬 및 티타임 등) * 현재 상임단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조건 저하되는 비상임으로는 불가하고, 비상임단원이 추가되어 현재 연주때마다 객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족한 예술단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개념으로 오히려 예술단의 유연성 확보에 유리함을 이해시킴</li> <li>2. 사무단원은 연주단원들의 연주를 지원하는 역할로 기획, 홍보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도 직원과 동일해야 함을 이해시키고, 근무시간 증가분에 대한 수당협상에 최대한 사무단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노력함.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중인 조례는 의회가 패소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된 사항이므로) 패소된 조례는 폐지되므로 군산시립예술단조례가 폐지되며, 예술단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는 것임을 납득시킴.</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극복 노력</b></p>	<p>3. <b>사무단원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제안</b>  * 현재 퇴직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무단원들에게 그들이 합의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불가능하므로,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부분은 신규채용하는 사무단원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설정하기를 제안드립니다.</p> <p>4. <b>의회 행복위원회 위원 개별적 미팅 및 간담회 실시</b> ('25. 8.27)  * 수정조례 신구조문과 사무단원 임금협상 내용 등</p> <p>5. '24.5월 공청회때 시의회 의원들이 받은 감정에 대해 예술단 대표들 노조 간부들에게 전달하면서 대책을 강구했고, <b>예술단 대표들이 의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잘해보자는 화해의 악수를 함으로 극적 화해</b> ('25. 9. 5)</p>
<p style="text-align: center;"><b>기타 에피 소드</b></p>	<p>○ '24년 시의회 본예산심의시 '25년도 군산시립예술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4시간만에 복원됨</p> <p>- 전액삭감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원들이 '24.12.5일 송년음악회 연주를 앞두고 무대위에서 연좌시위를 벌임</p>

#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니 스마트한 교통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 군산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및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

	<p><b>추진 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2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li> <li>- 다양한 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 단위시스템 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li> </ul> </li> <li>○ 새만금북로 출퇴근시 통행차량 정체 심각 해결 요청 및 산단 입주기업들의 대형물류 이동 시 신호등 파손 민원 다수 접수</li> <li>○ 군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추진(24.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리빙랩 및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시민 민원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li> </ul> </li> </ul>
<p><b>사례 내용</b></p>	<p><b>추진 내용</b></p> <p><b>사업 부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군산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및 신호개방 시스템 도입 운영</li> <li>- 회전식 신호등</li> <li>-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등</li> </ul> </li> <li>○ <b>군산시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확대</li> <li>- 신호개방 시스템 전면 확대</li> </ul> </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실시간 신호제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회전식 신호등</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신호개방 시스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긴급차량 우선신호</p> </div> </div>

<b>팀 노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생각 1) 산단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내부에서 산업단지로 출·퇴근시 극심한 정체로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잦은 민원 발생</li> <li>⇒ <b>전국 최초로 실시간 신호제어를 통한 정체 완화로 출퇴근 시간 단축</b></li> <li>⇒ <b>시범사업으로 관계기관(군산경찰서 등)의 우려와 거부감에 따른 지속적인 설득</b></li> </ul> </li> <li>○ <b>(생각 2) 대형물류 이동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단내 대형물류(선박블록, 블레이드 등) 이동시 신호등의 지장 발생으로 이동시마다 신호등을 해체 후 복구 하는 애로사항 발생</li> <li>⇒ <b>회전식 신호등 도입으로 해결</b></li> </ul> </li> <li>○ <b>(생각 3) 차량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등 달아주란 시민 제안 해결 방안 제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신호등 위에 잔여시간 표시등을 달아주란 제안은 경찰청 심의 미통과</li> <li>⇒ <b>민간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내비, 현대기아차 내비 등)을 통해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로 시민에게 신호정보 개방</b></li> </ul> </li> <li>○ <b>(생각 4)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상지 확대 사업 추진 예산 부족문제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으로 24억 확보</li> <li>- 보급 및 특화 솔루션(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도입을 통한 적용 구간 확대 예정</li> </ul> </li> </ul>
<b>주요 성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국 최초 도심부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최초 도입-타 지자체 모범사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북로 옥녀교차로 기준 하루 통행량이 4만대 정도이며, 그 중 55%인 2만 2천대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어 있음</li> <li>- 새만금북로상의 최초 신호등 시작 지점인 옥녀교차로는 출퇴근 시간에 300대 이상의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하고 있어, 산단지역 근로자들의 군산대에서부터 내초사거리까지는 "운전자의 기다림의 인내심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할 수 있음</li> <li>- 우리시를 비롯하여 군산경찰서,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개발공사 등 관련기관 간 수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장기적인 플랜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음</li> </ul> </li> </ul>

주요  
성과

- 이에 우리시에서는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보자는 의견이 도출되었고, 군산경찰서와 협의하여 2024년 시범운행을 거쳐 2025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음
-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도입 이후 출퇴근 시간이 근로자 체감 약 15분 정도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효과 평가 결과이며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산단 입주기업 민원 해소를 위한 '회전식 신호등' 설치**
  - 산단내 입주기업간 대형물류(높이15m 이상 선박블록, 블레이드 등) 이동시 신호등 지장발생
  - 기업인과 근로자 면담 중 애로사항 해결 요청 민원 접수
  - 회전식 신호등을 도입하여 버튼 하나로 신호등의 가로부착대를 회전하여 물류 이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원 해결
-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 표시를 위한 '신호개방' 추진**
  - 차량등기구 위에 차량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라는 민원 접수
  - 차량등의 잔여시간 표시는 현재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미통과 과제
  - 또한 차량등 잔여시간 표시기 부착시 방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투입 필요
  - 대안으로 내비게이션,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에 차량등 시간 잔여 표시를 통해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제안 해결
- **시민들의 의견 및 관계부서 면담을 통한 공모사업 사업대상지 및 솔루션 선정**
  - 시민 리빙랩 및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관계 부서 면담
  - 보급 및 특화솔루션(실시간 신호제어 및 신호개방)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 지원 및 선정(24억)
  -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과제를 본사업에 반영 추진하여 '옥녀교차로' 인근 4개의 교차로에 실시간 신호제어를 추가 적용하여 출·퇴근시 교통혼잡 민원 해결 예정

업무 담당자	극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시도되는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도입전 시스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검토 회의 및 시뮬레이션</li> <li>-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수차례의 회의로 실행결정</li> <li>-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 홍보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전환</li> </ul> </li> <li>○ 회전식 신호등에 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경찰서를 비롯한 신호 관계기관들의 회전식 신호등 적용 우려 해소</li> <li>- 심야시간에 운행되는 대형물류 이송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li> </ul> </li> <li>○ 첨단 기술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전자와 시민 적응을 위한 홍보 노력 등</li> </ul>
	기타 에피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시 차량 지체가 심해요' 라는 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적용 후 차량 지체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다시 지체 심화</li> <li>-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집데이터 오류 미인지 발생</li> </ul> </li> <li>○ 해외에 다녀온 군산시민들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시행하는 차량신호등 위 신호 잔여표시를 군산시내에 적용 검토?</li> </ul> </li> <li>○ 신호등은 어디로 갔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물류 이송시 회전식 신호등을 돌린 후 미복원에 따른 운전자들의 신호등이 없어졌다는 전화 민원 발생</li> </ul> </li> </ul>

## 고군산의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만든다

- 말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레킹코스 개설 -

사 례 내 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원 5개 섬을 4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사와 감리단, 발주처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업의 성패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수한 위기와 갈등을 철저한 기술검증과 대안제시로 사업을 완료하여 하여 향후 고군산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트레킹 코스 건설의 초석을 마련</li> </ul>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 7월 당시 인도교 개설사업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제2교 케이블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과 보강방안을 두고 시공사, 설계사, 자재업체 간 극심한 대립상태 있었으며 이미 군산시는 약 90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두고 시공업체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3교에 대한 공법변경 등으로 더욱 심한 대립을 하고 있었음.</li> <li>○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업팀은 소송과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해결하고 극심한 갈등으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기술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사의 동의를 구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국 소기의 목적물을 완성하는 성과를 만들어 냄</li> </ul>
	팀 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팀장(오근엽)은 소송진행, 업체간 갈등관리, 의사결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리딩하는 한편 팀원(윤용목)은 공사관리, 기술검증, 예산운용, 행정지원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 정상화에 노력.</li> </ul>

주요  
성과

**1. 공사비 절감 (약 7억원)**

- 시공업체와 군산시간의 공사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공사는 제3교(명도~광대도)의 시종점부 4개소의 기초공사를 파일항타 공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사비 추가로 증액하여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 공사를 지연시키려 하자 협력팀은 공사비와 공기면에서 훨씬 유리한 대체(직접기초)공법을 제시하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 및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대체공법으로 시공하여 줄 것을 강력요청하였으나 반대하자 업체의 해당구간 포기동의를 확보한후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하여 결국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음.

**2. 하자처리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강방안 결정(예산확보 10억원)**

- 공사가 완료된 제2교(보농도~명도)는 사장교로 케이블의 장력을 통하여 본 구조물의 주경간의 지지력을 분담하는 교량으로 케이블의 역할이 상당한 대 이런 주요 구조물이 파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구조물 전체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강공사를 진행이 필수였음.
-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문제를 해결
  - ① 우선 구조물 전체에 대한 신속한 안전진단을 시행
  - ② 케이블에 대한 보강방안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③ 최적의 보강방안 결정 후 신속한 예산확보 (도비 10억원 확보)
  - ④ 하자책임 관련업체에 보강비용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중재
  - ⑤ 협의불발로 추가적인 파손방지를 위하여 군산시 우선 시공
  - ⑥ 하자책임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및 공사비(15억원) 소송 추진 중

업무담당자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큰 어려움은 군산시, 그리고 업체 상호간 무너진 신뢰와 그에 따른 공사비용 갈등, 공사지연에 따른 행정신뢰도 추락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 갔고 언론이나 의회 같은 견제기관은 더욱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당사자로서 하루 하루 견디기 힘들었으나 팀을 믿고 설득하고 해결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문제를 해결</li> </ul>
	극복 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해 당사자(관련업체)들에게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과 공사를 구분하여 각자 해야할 일은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 줄 것을 요구 하되 행정의 협조할 부분과 제제를 가해할 부분으로 나누어 명확한 업무처리로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고 판단함.</li> <li>2) 이 사업의 문제점을 감추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떻게 해결 하려고 하는지를 언론이나 의회와 함께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li> </ol>
	기타 에피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 5개의 섬을 연결하는 트래킹코스 개설사업은 습곡단층으로 유명한 고군산 국가지질공원의 비경과 아름다운 서해를 품고 거닐 수 있는 총연장 약7.2km에 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해상트래킹 코스로서 향후 군산 해양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전망됨.</li> <li>○ '26년 상반기 마지막 단절구간인 제3교와 광대도 산책로 접속구간이 완성되면 군산시는 교량의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 일일최대관람 제한 등을 적극 검토하여 최근 과다관광수요(over tourism)로 인한 폐해와 지역주민의 이탈문제(gentrification) 등을 예방함으로써 명품 트래킹코스로서의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 임. 운영 방식에 대해 직접 문의를 받았음.</li> </ul>